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귀농귀촌인 정착 다각도로 돕는다

익산시, 다음 달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1일 4만60180원 최대 90일 지급

군산시, 정주의향 단계부터 이주 정착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지원

익산시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

다음달 3일부터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4백여만 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전국 시행계획이다.

시는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 최초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8,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입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정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지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권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전북 최대 기업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지역 밀착형 귀농·귀촌 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유치지원과 안정 정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의 귀농·귀촌 인구는 505세대 904명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밀도사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더 많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발굴과 지역 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으로 도시민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단순 영농기술교육과 홍보 행사 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산으로의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농지 및 주택 안내, 일자리 정보제공으로 정착 방향을 전환했다. 또 교육, 박람회 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직접 체험으로 전환 실제 장기간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밀도 높은 귀농귀촌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단기간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총 5가구를 대상으로 참가

자에게는 3개월의 주거지원과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이용법, 농촌이해 등 귀농·귀촌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귀농·귀촌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군산에서의 주거·농지·일자리 등 관심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갈등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화합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인 융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인주거기반조성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보급자리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귀농귀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여 상생 발전하는 활력 넘치는 우리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민간전문가 협력 정책환경변화 선제 대응

익산시가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023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병렬 위원장과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아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제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 주요 정책 설명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제안사항 설명 및 토론, 시정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자 모집

군산시보건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에 실시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참여자가 450명을 오는 7월 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오늘날 건강 앱(APP)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손목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를 비롯해 사전 건강조사 결과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 시스피커(스마트폰 미소자자)를 선별 지원한다.

제공된 기기로 측정한 신체활동량, 혈압, 혈당 등의 건강측정 정보는 '오늘건강 앱'과 연동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모니터링하며,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간담회 및 건강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사전건강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 관리(건강군 전하약군, 허약군)를 구분해 제때 약 먹기, 등 건강이전을 부여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반다비체육센터 인프라 '전국 최고'

장애인 특화 신체활동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반다비체육센터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국 최고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복합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62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준공했으며 연면적 5,589㎡(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 수중운동실, 다목적체육관 2층 헬스장 VR실 3층 펜싱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갖췄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건립타당성 조사연구시 전국 장애인체육시설이용자 31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기본설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설계협의를 거

쳐 BF·에비인증(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우수등급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반다비체육센터 본인증 절차를 진행중으로 현장 조사 시 전동휠체어 충전기 배치 등 사소한 미비점을 모두 개선시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으로 BF·본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준공 후 1년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반다비체육센터 본인증 절차를 진행중으로 현장 조사 시 전동휠체어 충전기 배치 등 사소한 미비점을 모두 개선시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정식 개장

지역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매장인 군산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정식 개장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 관련 국비 5억, 도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20억의 신축공사비로 연면적 633㎡(직매장 605㎡, 로컬카페 28㎡) 규모로 준공했다. 이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간접 조영 공사 내부 집기 등을 구입하고, 진입 시 교통혼잡 및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돼 마감속차로를 개설했다.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임시 개장에 관리·운영상의 점검을 마친 상태다.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원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가 개장함에 따라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5개소(군산로컬푸드직매장, 군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동군산로컬푸드직매장,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가 운영되며, 출하를 희망하는 신규 농가는 시에서 주관하는 출하자 교육을 이수하고 직매장과 약정을 체결한 후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김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로컬푸드 특매장으로써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지역 생산먹거리 유통소비가 확보되어 지역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국회서 '식품기업 제품' 우수성 알리

대한민국 식품수도 익산시가 국회의 사당 앞에서 지역 식품기업 제품 우수성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22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마당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형 일자리 등 국내 식품산업 메카로서 지역 식품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농·특산제품 홍보전을 개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한병도·김수홍 국회의원의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비롯해 부시장 이하 국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미스'로

잘 알려진 (주)하림산업과 지역 명물로 악히 알려진 슐리치킨 등 약 14개의 기업이 홍보전에 참여했다.

이번 홍보전은 다양한 식품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우수성으로 한때 인산인해를 이루며 일부 품목은 조기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익산시-국회의원간 당정 협의회도 개최했다. 정치권과 익산시가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당·정·경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1조원 달성 및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뜻을 모았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부처예산안에 일부반영·미반영된 국가예산이 기재부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